KT vs SKT·LGU+ 네트워크 속도전 '으르렁'

주파수 할당 공고 앞두고 충돌

KT "1.8GHz 조건없이 할당하라" SKT·LGU+ "과도한 특혜 꼼수"



주파수 할당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해관계를 가진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면충돌했다.

KT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 없는 1.8GHz 인접대역 할당 없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준비 중인 LTE-A(어드밴스드) 서비스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공을 펴봤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발끈하며 "KT의 주장은 과도한 특혜를 누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내주 중 주파수 할당 공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1.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고심 중이다.

KT가 해당 대역을 갖게되면 큰 투자 없이 기존보다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때문에 KT는 1.8GHz 인접대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네트워크 및 기술 투자를 통해 광대역 LTE와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내는 LTE-A 서비스를 준비하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1.8GHz 대역 경매에서 KT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발목 잡으려면 LTE-A 서비스 늦춰라"

먼저 선공을 펴부은 것은 KT. 이 회사는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적용 중인 주파수 부하분산기술(MC)과 올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선보일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광대역과 같은 품질의 LTE-A 서비스가 가능하면서도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서비스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적용을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접대역을 할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1.8GHz대역 경매에서 KT를 배제하거나, 주파수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두는 것은 인위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다.

용어설명

 # MC(Multi Carrier)
단말기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트래픽 부하분산 효과를 주는 기술.

 # CA(Carrier Aggregation)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마치 하나의 주파수처럼 결합시켜 대역폭을 넓히는 기술.

●SKT·LGU+ "경영상 오판을 정책 수혜로 만회하려는 꼼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KT의 주장은 900MHz를 선택한 주파수 전략 실패 등 경영상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지난 5월3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3분기 내에 CA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주에는 CA 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을 신청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번 주장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또 KT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두 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된다며 주파수 할당 문제를 네트워크 기술개발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보고 만지고 얘기하고 "폴리야 놀자"

TOUR & INFO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 일산에 오픈 스토리 직접 체험…아이들에 인기짱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카 폴리'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키즈파크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가 20일 경기도 일산 고양 꽃전시관에서 정식 개장한다. 어린이들이 개장 하루 전인 19일 사전 공개된 전시장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들의 폴종리로 통하는 '로보카 폴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등장했다.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가 20일 경기도 일산 고양 꽃전시관에서 정식 개장한다. 전시장만 1100평으로 국내 캐릭터 테마파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카 폴리'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키즈파크. 홀로그램쇼와 폴리 토크 등 디지털 놀이시설(어트랙션)과 영화 '트랜스포머' 제작팀에서 만든 실제 크기(2m)의 로보카 등을 갖추고 있다.

정식개장을 하루 전인 19일 선공개된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를 방문한 관람객 1000여명은 애니메이션 속 공간적 배경이 그대로 재현된 브룸스타운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짚라인과 에어바운스 등 역동감 넘치는 놀이시설, 폴리와 친구들이 보여주는 환상적 홀로그램쇼, 스크린 속 폴리와 1: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폴리 토크 등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일곱살 아들과 함께 방문한 김희진(41)씨는 "애니메이션과 배경이 똑같을 뿐 아니라, 이미 보았던 스토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아이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진욱 비젼웍스 글로벌 대표는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는 놀이시설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정교한 배치를 했다"며 "개장 이후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oliplay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물대포로 더위 날리자

에버랜드 '썸머 스플래쉬' 오픈



에버랜드는 21일부터 9월1일까지 대표적 여름축제 '썸머 스플래쉬'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스플래쉬'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일 252톤의 물을 뿌리며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썸머 스플래쉬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스플래쉬 퍼레이드'. 6대의 플로트와 총 40개의 워터캐논(물대포)에서 사방으로 분사하는 총 84톤의 물줄기와 손님이 직접 참여해 퍼레이드 연기자와 펼치는 물총놀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판타스틱 썸머 나이트'라는 부제처럼 낮 더위를 피해 저녁 나들이에 나선 많은 고객들을 위해 야간 즐길 거리를 대폭 신설한 것이 특징. 뮤지컬 감독 박칼린 씨가 연출한 뮤지컬 멀티미디어 불꽃쇼 '박칼린의 썸머 나이트 주크박스'와 드림웍스 인기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의 캐릭터 소품들이 전통 한지 등으로 재현된 '마다가스카 라이팅 쇼' 등을 즐길 수 있다.

에버랜드는 축제 기간 동안 매일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시행한다. 김명근 기자

허리가 편한 의자…건강 UP! 공부 효율도 UP!

BIZ BOX | 우진교구산업 학생용 책걸상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체격은 과거와 비교해 몰라보게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 각급 학교 교실에는 예전 부모님 시절의 체형에 맞춘 책상과 의자가 대부분이다. 몸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오래 지내다 보니 성장기 학생들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척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의학계에 따르면 요즘 학생들이 척추 측만증 등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운동 부족과 불안전한 자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진교구산업㈜(www.wjkyogu.co.kr) 박침곤 회장(사진)은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고민해 청소년들의 체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박회장은 그동안 교구 분야에서 20여 개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KS 인증과 각종 인증을 받았다. 2002년에는 학생들이 앉은 상태로 척추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실용 듀오 의자가 8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박회장은 이후에도 교구 개발과 개선에 노력을 거듭했고, 우진교구 산업은 2012년 조달청으로부터 두 번째로 우수 제품 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책상은 고강도 강화 유리의 상판이 특징이다. 다양한 색상(하늘색, 아이보리색, 옅은녹색)인 5mm 두께의 강화 유리는 깨질 염려가 없고 학생들의 낙서도 쉽게 지울 수 있다. 또한 밝은 색깔로 교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다.

우진교구는 최근 학생들이 앉은 상태로 무의식중에 척추 운동을 할 수 있는 신디자인과 실용신안으로 개발한 의자를 발표해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침곤 회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의자는 등판이 딱딱하게 고정된 것보다 전, 후로 탄력성이 있는게 무의식 중에 척추를 전, 후로 움직이는 운동을 시켜줘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새롭게 개발한 의자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ukid



샘표 '허수아비 만들기' 300여명 참가



샘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샘표 유기농 콩농장'에서 지난 15일 허수아비 만들기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샘표 유기농 콩농장은 된장의 주재료가 되는 콩을 심고 재배하여 메주로 장을 담그는 과정을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샘표 이천공장 내 유기농 콩농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0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샘표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된장을 먹입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샘표 된장학교 및 유기농 콩농장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드링크 해피 페스티벌'



먹는 샘물 전문 기업 하이트진로음료(대표 강영재)가 국제 식품음료품평회인 '2013몽드셀렉션(Monde-Selection)' 수상을 기념해 '드링크 해피 페스티벌(Drink Happy Festival)'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출품한 '하이트제로 0.00(사진)'은 국내 무알콜 음료 브랜드 최초로 음료부문 은상을 수상했고, 먹는 샘물 '석수'와 '퓨리스', 프리미엄 탄산수 '디아망'은 각각 금상 및 대상을 수상했다.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하이트진로음료 홈페이지(http://www.hitejinrobeverage.com)에서 볼 수 있다.

롯데칠성, 펩시콜라 'PEP 이벤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펩시콜라 붐업 조성을 위해 'PEP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벤트 내용이 인쇄된 펩시콜라 250ml 캔 제품의 뚜껑 뒷면 행운 번호를 QR코드나 이벤트 페이지(http://www.pepsievent.co.kr)에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문자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720명에게 아이패드 미니, 닥터 드레 헤드폰, 영화예매권, 운동화 상품권 등이 랜덤으로 개별 포장된 PEP박스를 제공하고 5만명에게는 펩시콜라 250ml 캔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대상 '하루영양愛 다이어트' 출시

대상㈜ 건강사업본부 대상웰라이프가 체중조절용 식사대용식 '하루영양愛 다이어트(사진)'를 출시했다. 160Cal로 하루영양愛 제품 중, 가장 낮은 칼로리를 자랑한다. 실제로 고소한맛, 고구마맛 등 기존 제품보다 약 20% 정도 가량 칼로리를 낮췄다. 칼로리는 낮췄지만 체중조절 시 필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열량영양소와 비타민 12종, 미네랄 9종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 또한, 3가지 복합단백질(대두단백, 유단백, 카제인)과 식이섬유,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HCA)를 넣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다. 식이섬유는 식사의 칼로리 밀도를 낮추고, 포만감을 주며,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200mL 1캔에 가격은 2200원이며, 대상웰라이프 녹즙 웰디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